

천연가스 액화기술 실용화 임박

국토부, 액화플랜트 실증시설 착공 ... 가스공사 인천기지 건설

천연가스 액화플랜트의 고도화 기술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가스공사의 인천 LNG 생산기지에 액화플랜트 고도화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증시설을 착공한다고 5월10일 발표했다.

LNG 액화플랜트는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전처리한 후 -162°C 의 초저온 상태로 액화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임으로써 수송과 저장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시설이다.

대지면적 3000㎡에 들어서게 될 실증시설은 원료가스 조절설비와 예냉설비, 액화설비, 증질가스 분리설비, 냉매저장탱크 등으로 구성되며 하루 100톤의 천연가스를 액화시킬 수 있다.

예산은 330억원 상당이고, 준공은 2013년 예정이다.

국토부는 LNG 플랜트기술 고도화 사업(R&D)에서 개발된 LNG 액화공정과 상용 액화플랜트 설계기술, EPC(설계·조달·시공) 등을 적용해 상용 액화플랜트 500만톤 및 설계기술을 201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어 LNG 플랜트 세계 5위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척인수기지에 적용해 60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11>